

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

껌

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

껌이라는 단어의 역사

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



완성된 이름

출처: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

껌

한눈에 보는 기록

뜻

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.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...

요약 연대표

표기	20세기	현재
껌	○	■
쌈	○	-

history.wordrow.kr wordrow

오늘의 뜻

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.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 먹는다.

문헌의 첫 기록

20세기

수록 용례

3개

수록 내용

뜻 · 표기 · 문헌

사전의 뜻풀이,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.
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.

☞ 우리가 알고있는 '껌'의 뜻

국어사전 뜻풀이

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.

씹을 수 있도록 고무에 설탕과 박하 따위의 향료를 섞어서 만든 먹을거리. 입에 넣고 오래 씹으면서 단물을 빼어 먹는다.

☞ 껌의 표기 연대표

표기의 변화와 공존

껌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.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.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,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.

표기 · 근거	15세기	16세기	17세기	18세기	19세기	20세기
껌 사전 표기 요약	—	—	—	—	—	● →
쌔 문헌 수록 표기	—	—	—	—	—	● →

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

- **사전 표기 요약**: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.
- **문헌 수록 표기**: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.
-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.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,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.
-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.

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

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. ‘현재’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.

- 껌
20세기현재
- 쌔
20세기

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

쌔, 껌



검의 어원과 변화

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

사건의 어원·변화 설명

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

📖 옛 표기와 등장 시기

‘검’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.

↔ 다른 언어와 한자음

‘검’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.

🔍 표기 방식과 특징

20세기에 나타나는 ‘샘’은 ‘ㅅ’을 ‘ㅈ’으로 적던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이 반영된 것이다.



문헌 속의 검

전체 용례 3개

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. 원문,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.

20세기 샘, 검 용례 3개

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
샘, 검

📖 출처 1921 조선일보 1월16일 3면

용례 01

66 문헌 용례

요사이에 저녁이면 소위 고학싱이라는 녀자가 도라다니며 추링 샘을 니놋코 사라 후는 일이
있다고 후는바.

📖 현대어 풀이

요사이에 저녁이면 소위 고학생이라는 여자가 돌아다니며 추잉 검을 내놓고 사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바.

66 문헌 용례

여송연을 피워 가며 『쌔루』를 마시며 『촉콜렛』을 먹으며 섶을 씹어 가며.

㉮ 현대어 풀이

여송연을 피워 가며 맥주를 마시며 초콜을 먹으며 껌을 씹어 가며.

66 문헌 용례

질경질경 껌을 씹고 잇는 게집애.

㉮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
- 세기 분류·표기·문헌명·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.
-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.
-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.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.

껌의 보충 설명

‘껌’은 영어 ‘gum’에서 온 말이다. 영어 ‘gum’에는 ‘고무’라는 뜻도 있고 ‘껌’이라는 뜻도 있다. 우리말에서 ‘껌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주로 ‘chewing gum’이라고 한다. 우리말에서는 ‘고무’는 일본어를 통해 받아들여 ‘고무’로 정착이 되었고, ‘껌’은 영어를 통해 받아들여 ‘껌’으로 정착이 되었다.##껌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발명되었다. 실각한 멕시코의 대통령이 미국에 머물면서 발명가에게 멕시코에서 가져온 치클로 값비싼 고무를 대체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. 치클로 고무를 대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맛을 더해 씹을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아 성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‘chewing gum’이라 불렸다.##일본 추잉 껌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1916년에 껌이 들어왔다고 한다.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. 미국에서 직접 수입되어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. 일본어에서는 껌을 ‘가ム(가무)’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받았다면 ‘가무’ 혹은 ‘까무’ 정도로 우리말에서 쓰였을 것이나 1920년대에 이미 ‘껌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. ‘gum’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면 ‘검’ 정도가 될 것이다. 그렇지만 영어의 유성음, 즉 b, d, g는 우리말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. ‘gum’의 경우는 일찍부터 된소리 발음으로 표기가 되었고 이것이 굳어져서 관용으로 ‘껌’이라는 표기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.##껌이 일찍 보급되기는 했지만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. 껌이 널리 보급된 계기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정 시절부터이다. 제2차 세계 대전 때 미군의 보급품에 껌이 포함되면서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.

껌 관련 낱말

고무



검의 참고문헌

사전 편찬 참고자료

- 피에르 싱가라벨루/실뱅 브네루 편 김아애 역 2022 《세계사 만물관》 월북
- 안정효 2000 《가짜영어사전》 현암사



자료 출처

이 자료는 ‘단어의 역사’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. 원문과 현대어 풀이,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.

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,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.

history.wordrow.kr · [검의 뜻과 역사](#)